

# 『삼국유사』에 나타난 원효의 이인적 성격

김 지 연\*

차 례

- |                        |                                 |
|------------------------|---------------------------------|
| I. 문제의 제기              | 3.3. 凡人型                        |
| II. 설화에 나타난 원효의 기본적 성격 | IV. 『삼국유사』에 나타난 원효설화의<br>성격과 의의 |
| III. 설화에 나타난 원효의 인물 유형 | 참고문헌                            |
| 3.1. 英雄型               |                                 |
| 3.2. 異人型               |                                 |

## I. 문제의 제기

문학은 역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역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역사가 지배층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면 문학은 역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피지배층의 인식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면에서 문학은 역사에서 다루지 못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보여준다는 의의를 지닌다. 설화 문학은 문학 가운데에서도 글로 고정되지 않고 세월을 거치며 변개를 거듭하여 기록된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애초에 문자로 창작되는 경우와는 달리

\* 목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설화 향유자 전반의 인식을 고루 드러내는 특징을 지닌다. 이 가운데에서도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의 행적과 관련된 설화 즉 인물설화는 그 인물을 설화 향유자가 인식하고 있는 인물로 새롭게 창작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존재의 가치가 있다.

元曉(617~686)는 역사상으로는 신라의 大德이며 우리 나라의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탁월한 불교 사상가로서 인정을 받아왔으며 설화에도 다양한 사적과 함께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가 남긴 방대한 분량의 저술과 그와 관련한 설화는 원효가 무엇에 관심을 보였는가 혹은 그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관심이 존재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이제까지 원효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원효의 저술물들을 연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원효에 관한 설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첫째 방법은 원효의 불교 사상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작업으로 원효가 다양한 저작물을 통해 독특한 불교 사상을 드러내고 있기에 가능하다. 반면에 원효설화<sup>1)</sup>는 설화 장르의 성격상 심오한 사상을 전하기는 어려우며 설화의 특징으로 인해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기도 해서 정확한 사실이라고 하기도 어렵다.<sup>2)</sup> 그러나 원효설화를 연구하는 것은 원효가 설화 향유층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원효설화에 대한 연구도 역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불교학의 관점에서 원효설화를 연구한 것이고, 둘째는 설화문학으로 원효설화를 연구한 것이다. 원효설화를 불교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업적들<sup>3)</sup>에서는 원효설화를 통해 신라의 大德인 원효의 傳記를 완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원효라는 인물의 史的 연구를 위해 설화자료를 총동원하여 그의 행적을 재구성하고자 노

1) 원효와 관련된 설화 모두를 원효설화라 약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 조동일, 「원효설화의 변모와 사상논쟁」,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지식산업사, 1996), pp.41~42.

3) 김영태, 「전기과 설화를 통한 원효 연구」, 『불교학보』 17(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0)

———, 「현전 설화를 통해 본 원효대사」, 『불교사상사론』(민족사, 1992)

김태준, 「원효전의 전승에 대하여」, 『어문논집』 7·8(전남대, 1985)

김상현, 「원효의 행적에 관한 몇 가지 신자료 검토」, 『신라문화』 5(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9) 등

력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오래 전 생존한 인물의 다양한 행적을 추적하여 원효의 일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원효설화를 원효의 전기를 재구성하는 자료로 삼는 태도는 설화문학이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창작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설화적 사실을 역사적 사실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반성에서 원효설화를 설화문학으로 연구하고자 한 노력<sup>4)</sup>이 등장하였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원효설화를 설화문학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였고, 최근의 논의들에서는 원효 설화를 소재에 따라 분류하고 기록 간의 同異點을 비교하여 그것의 역사적 변이과정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각종 문집과 지리지, 읍지, 역사서 등의 다양한 기록물이 지니는 기록(서술)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비교 작업들이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 자료가 지니는 서술상황의 특수성을 배제하며 원효에 대한 설화 향유자의 인식을 살피기 위해서는 다른 기록물들을 비교하기에 앞서 동일한 기록물에 들어있는 원효설화를 정밀하게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원효설화를 수록하고 있는 기록물 가운데 가장 많은 설화를 담고 있는 것이 『삼국유사』이다. 『삼국유사』에는 紀異, 興法, 塔像, 義解, 感通, 避隱篇에 걸쳐 모두 10편의 원효설화가 실려 있다.<sup>5)</sup> 이 논문에서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10편의 원효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원효에 대한 설화 향유자의 인식을 살피고자 한다. 여기에서 찾아지는 다양한 원효의 인물형은 설화 향유자의 대상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키는 후대의 서사문학에 나타나는 향유자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4) 황폐강, 『신라불교설화연구』(일지사, 1975)  
 사재동, 「원효불기의 문학적 연구」, 『배달말』 15(배달말학회, 1990)  
 조동일, 「원효설화의 변모와 사상논쟁」,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지식산업사, 1996)  
 오대혁, 「원효설화의 구조와 의미」(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6) 등
- 5) 편목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紀異」; 太宗 春秋公, 「興法」; 東京興輪寺 金堂十聖, 「塔像」; 前後舍利, 洛山寺 二大聖 觀音 正趣, 「義解」; 二惠同塵, 元曉不羈, 義湘傳教, 蛇福不言, 「感通」; 廣德 嚴莊, 「避隱」; 朗智乘雲 普賢樹

## II. 설화에 나타난 원효의 기본적인 성격

일반적으로 인물설화의 유형을 구분할 때 기준이 되어 온 것은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지닌 능력이다. 그런데 이때의 능력은 빈부와 귀천, 선악 등 실생활에서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인물설화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능력은 지혜, 지식, 용기 등으로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가치판단의 기준에 반드시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화 주인공의 능력을 중심으로 인물설화의 유형을 구분할 경우, 설화의 주인공은 그 능력에 따라 신인, 이인, 영웅, 범인, 바보로 나눌 수 있다.<sup>6)</sup> 이 가운데 예사사람보다 뛰어난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은 신인과 이인, 영웅이다. 신인은 하늘에서 부여한 운명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항상 천상계를 지향하는 인물인데 반하여 이인과 영웅은 지상계를 지향하는 인물이다. 또 대개 영웅은 이야기 속에서 세계와의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그것의 승패를 결정짓는데 반하여 이인은 숨어지내며 잘못된 세상과 대결하지만 실제적인 싸움을 벌여 승패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영웅은 체제지향적 인물로 그의 성공이나 실패가 체제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인의 행위는 숨겨진 논리를 보여줄 뿐 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인물설화의 유형 분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물설화를 유형화하는 데 매우 적절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원효설화 가운데 원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義解篇의 <元曉不驕> 한 편뿐이고, 나머지 설화에서 원효는 보조적 인물로 등장한다. 우선 원효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원효불기>조를 살펴 보자.

의해편의 <원효불기>조는 원효의 일생을 출생에서 활약, 입적의 순서에 따라 다룬 것으로 일찍이 '원효전'으로 불리워왔다. 여기에 나타나는 원효의 탄생과 성장은 일반적인 영웅이 지니는 비범한 면을 보이고 있다.

6) 조동일, 「영웅이야기의 유형·분류 방법 모색을 위한 시도」, 『구비문학』 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구전설화에 나타난 이인의 면모」, 『한국설화와 민중의식』(정음사, 1985)

…당초 그 어머니가 유성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꿈꾸고 이내 태기가 있었고, 장차 산기가 있을 제, 오색 찬란한 구름이 땅을 덮었으니, 때는 진평왕 39년이요, 대업 13년 정축이었다. 대사는 태어나자, 穎異하여 스승에게서 배우지 않았고…7)

위 인용은 원효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보여준다.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이 품 속으로 들어오는 태몽과 해산당시 집안을 오색구름이 뒤덮었다는 것, 어려서부터 뛰어나 배우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은 많은 영웅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이처럼 <원효불기>는 원효의 비범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다음에 소개되는 설총의 출생 배경은 원효의 이러한 비범성이 여느 영웅들과 다른 이인적 면모를 지닌 인물임을 부각시킨다.

…그가 方外에 놀던 始末과 弘通한 사적은 唐傳과 行狀에 갖추어 실려 있으니, 이에서 다 실을 수는 없겠고, 다만 鄉簿 중에 기록된 한두 가지의 기이한 일을 쓴다. 대사가 어느 날 바람이 나서 거리를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다. ‘취라서 자루 빠진 도끼를 나에게 주려 하는가. 나는 하늘을 버릴 기둥을 다듬었다오.’ 여느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였으나, 유독 태종이 듣고 말하였다. “이 대사가 아마 귀여운 아내를 얻어 어진 아들을 낳고자 하는 것이야. 나라에 大賢이 난다면 이익이 그보다 더 큰 것이 또 있겠는가” … 궁리가 책명을 받들어 장차 찾으려 할 찰라에 원효는 이미 남산으로부터 문천교를 지나 오다가, 서로 만나게 되었다. 원효는 거깃물에 떨어져 옷을 적시었다. …8)

이 사건이 향전의 기록임을 생각할 때, 이는 설화적 운색이 더해졌을 소지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원효의 행동은 기이하지만 하다. 불교의 대승이 자식을 낳고자 한 것도 그렇고, 요석궁으로 들

7) 이가원 역, 『삼국유사 신역』(태학사, 1991), pp.324~325.

初夢流星入懷 因而有娠 及將產 有五色雲覆地 眞平王三十九年 大業十三年 丁丑歲也 生而穎異 學不從師

이하에서는 위 책의 인용면수만을 밝힌다.

8) 위의 책, pp.325~326.

其遊方始末 弘通茂跡 具載唐傳與行狀 不可具載 有鄉簿所記 有一二段異事 師嘗一日 風顛唱街云 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 人皆未喻 時太宗聞之曰 此師殆慾得貴婦 產賢子之謂爾 國有大賢 利莫大焉 時瑤石宮 有寡公主 勅宮吏覓曉引入 宮吏奉勅將求之 已自南山來過蚊川橋 遇之 伴墮水中濕衣袴

어가기 위해 거짓으로 물에 빠지는 연기를 하는 것 또한 그러하다.

비속하게까지 인식될 수 있는 원효의 행위가 능력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출생한 설총으로 인해서이다. 설총은 어질고 민첩하여 경사를 통달하고 신라의 십현(十賢) 가운데 한 사람이 될 만큼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탄생한 설총의 우수함은 원효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하여 그 행위가 비속한 경지에 떨어지지 않고 이인적 능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받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원효가 지니는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음의 기록이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쉬운 흥법편의 <東京 興輪寺 金堂十聖>은 원효가 당시의 설화 향유자에게 어떠한 인물로 인식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東壁에 庚向으로 앉은 泥塑는 我道·厭觸·惠宿·安舍·義湘이요, 西壁에 甲向으로 앉은 이소는 表訓·蛇巴·元曉·惠公·慈藏이다.<sup>9)</sup>

우리 나라에서 배출된 10명의 승려들을 두 방향으로 나누어 소상을 만들어 안치했다는 기록인데, 방향을 함께 한 승려가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흥미롭다. 원효와 함께 서벽에 갑향으로 앉도록 배치된 소상은 표훈(表訓)·사파(蛇巴)·혜공(惠空)·자장(慈藏)이다.

표훈은 기이편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조에 등장하는 인물로 하늘을 드나들며 경덕왕과 하늘을 이어주는 도술사적인 면모를 지닌 승려로 원효의 제자이다. 사파는 앞서 의해편 사복불언에서 살핀 사복(蛇福)과 동일인<sup>10)</sup>이라고 할 때, 역시 원효의 제자이다. 혜공은 의해편 <이혜동진>에서 원효와 같은 인물로 살핀 바 있다. 또 자장은 의해편 <慈藏定律>조에 등장하는 신라의 大德이다. 원효와 함께 서벽에 안치된 소상의 주인공들은 원효와 교유가 있었던

9) 『삼국유사 신역』 앞의 책, p.219.

10) 사(虫也)는 사(蛇)와 같은 글자로 ‘뱀’을 뜻한다. ‘福’은 ‘卜, 巴, 伏’ 등으로도 표기했는데, 어느 것이나 같은 발을 다양하게 적었을 따름이고, 그 말은 ‘아이’를 뜻하는 다른 단어로서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

이기문, 「신라어 ‘福(童)’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8·49(국어국문학회, 1970)

인물들로 의상과 함께 동벽에 안치된 인물들에 비하여 신이한 행적을 행하고, 원리원칙에 매이지 않는 사고를 가진 禪僧的인 면모를 지닌 인물들이다.<sup>11)</sup> 이는 당시의 설화 향유자들이 원효를 탈속적이고 신이함을 지닌 이인적 인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원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원효불기>조와 <동경흥물사 금당십성>조의 기록을 참고할 때, 원효는 이인적 성격을 기본 속성으로 삼고 있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인 원효는 세상과 심각한 갈등을 벌이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일반적 논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통해 그러한 체제지배적 논리가 전부가 아니며, 그것에 어긋난 것도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Ⅲ. 설화에 나타난 원효의 인물 유형

원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설화를 살펴 원효가 이인적 성격을 기본으로 한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나머지 설화들을 살펴보자.

#### 3.1. 英雄型

먼저 원효가 영웅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는 영웅이란 용어를 예사 사람이 지닐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또한 세계와 심각하게 부딪쳐서 승패를 결정하며 영웅의 일생에 부합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사용

11) 삼국에 불교가 처음 유입될 때에 중국에서 유행하던 神呪信仰이 먼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신흥종교가 처음 유입될 때 기존의 종교보다 영험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어느 곳에서나 새로운 종교가 유입될 때에는 이변과 기적을 보여주는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세력을 확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고승들에게 선승적인 면모가 많이 등장하는 것도 여기에 남겨진 고승들이 대개 불교가 완전히 정착하기 이전의 시대(신라말에서 통일신라 초기)에 생존했다는 점과 관련해 생각할 수 있다. (김영태, 『삼국시대 불교신앙연구』, 불광출판부, 1990)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의상과 함께 동벽에 위치한 인물보다는 원효와 함께 서벽에 위치한 인물들의 이인적 행적들이 『삼국유사』에 많이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하지는 않는다. 대개의 설화가 매우 짧은 길이며, 원효가 보조적 인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웅의 일생이라는 서사적 구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신라의 大德으로서의 면모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이 유형의 설화에서 원효의 능력은 설화 향유자에게 의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두 경우 모두 다른 인물이 과업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 등장한다. 이러한 경우로 <太宗 春秋>과 <廣德 嚴莊>을 들 수 있다.

기이편의 <태종 춘추공>조에서 원효는 소정방의 회신을 풀이하는 조력자로 등장한다.

...또 군사를 일으켜 당나라 군사와 서로 만나고자 할 제, 유신이 먼저 연기·병천 등 두 사람을 보내어 그 회기를 물어오게 하였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종이에 난새와 송아지 두 물건을 그려 돌려보내 왔다. 나라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원효법사에게 묻게 하였더니, 그는 이렇게 풀이하였다. '빨리 군사를 돌려 보내시오. 송아지와 난새를 그린 것은 두 가지가 다 끊어졌음을 이룸이요' 이에 유신이 군사를 돌려 패강을 건너러 할 제, 명령을 내리기를 '뒤처지는 자는 참하리라 하니, 군사들이 앞을 다투어 반쯤 건넌을 때 고구려 군사가 와서 노략하여 미처 건너지 못한 자를 죽이었다. ...12)

태종이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청한 당나라 군사와의 의사소통이 문제된 사건을 해결할 인물로 추천되어 손쉽게 임무를 완수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태종 춘추공과 김유신도 풀지 못한 회신을 원효가 풀어 국가의 크나큰 군사적 손실을 예방하고 있으며, 그것이 군사적 능력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원효의 영웅적 능력이 부각된다 풀이할 수 있다.

감동편의 <광덕 업장>조에서 원효는 광덕이 이미 해탈을 하고 광덕의 처를 탐하던 업장이 깨달음을 얻은 뒤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업장의 스승으로 등장한다. 광덕의 처를 탐하던 업장이 광덕 처에게 매섭게 거절을 당한 뒤 물

12) 『삼국유사 신역』 앞의 책, p.106.

庾信 先遣然起 兵川等二人 問其會期 唐師蘇定方 紙畫鴛鴦二物 廻之 國人未解其意 使問於元曉法師 解之曰 遠還其兵 謂畫鴛鴦二物 於時 庾信回軍 怨渡浪江 命曰 後渡者斬之 軍士爭先半渡 句麗兵來掠 殺其未渡者



그러나 원효법사에게 잘 길을 구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설화에서 원효는 삼관법을 지어 그를 유도하여 서방정토행을 돕는다. 신라의 고승대덕으로 마땅히 지녔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적 능력을 펼쳐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엄장은 부끄러워 풀러가 원효법사에게 나아가서 잘 길을 간절히 구하였다니, 원효는 鍾觀法을 지어 유도하였다. 엄장은 몸을 조종하게 하고 스스로 책망하여 한결같이 관법을 닦아서 역시 서방으로 올랐었다. 삼관법은 원효의 本傳과 海東僧傳 중에 실려 있다…<sup>13)</sup>

<태종 춘추공>과 <광덕 엄장>조에 등장하는 원효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 종교적 해탈을 원하는 제자를 위해 불교적 가르침을 펴는 조력자로 등장하고 있다. 원효가 이러한 문제 해결자로 등장한다는 것은 설화 향유자들이 원효가 지닌 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현실의 어려움을 문제없이 해결해 줄 인물로 원효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 3.2. 異人型

그러나 영웅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설화들이 있다. 이 경우에도 원효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으나 그 능력은 상식을 뛰어넘는 면모를 지닌다.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던 능력들이 어떠한 계기로 나타나되 그러한 능력이 국가의 위기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과는 관련되지는 않는다. 이 유형에 속하는 설화들로 <二惠同塵>, <朗智乘雲 普賢樹>를 들 수 있다.

의해편 <이혜동진>조에서 원효는 혜공의 이적을 소개하는 대목에 등장한다. 불승인 원효와 혜공이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으며 농담을 주고 받는 사건이 그것이다.

…만년에 恒沙寺로 옮겼는데, 이때 원효가 諸經의 疎를 지을 제, 대양

13) 『삼국유사 신역』 앞의 책, p.369.

莊挑毬而退 便詣元曉法師處 懇求津要 曉作鍾觀法誘之 藏於時 潔己悔責 一意修觀 亦得西昇 鍾觀 在曉師本傳 與海東僧傳中

우조(혜공)에게 나아가 질의하였고, 더러는 서로 농담을 붙이기도 하였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시내를 따라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 먹을 채, 원효가 돌 위에 똥을 누었더니, 우조는 손으로 가리키면서 농담을 하였다. “그대가 나의 고기에 오줌을 깔기는구나.”<sup>14)</sup>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신라 때, 중 원효가 혜공과 함께 물고기를 잡아서 먹다가 물 속에 똥을 누었더니 그 물고기가 문득 살아났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내고기(杼魚)’라고 말하고, 질을 짓고 인해서 그렇게 이름지었다” 한다.<sup>15)</sup>

처음에 소개한 <이혜동진>조만으로는 원효와 혜공이 어떠한 이인적 면모를 지녔는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소개한 설화를 보면 혜공과 원효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농담을 하였으나 실제로 물고기를 죽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국여지승람』의 기록보다 <이혜동진>조의 기록은 더욱 비속한 모습을 보인다. 농담을 일삼고 산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 계율을 어긴다는 점은 두 승려가 승려답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두 승려의 진실된 모습이 아님이 혜공의 말을 통해 드러난다. 즉 대변과 고기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만물의 생명은 소중한 것, 지켜져야 할 것으로 인식되는데 반하여 배설물은 더러운 것, 버려져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상반된 인식을 지닌 두 물체가 결국에는 하나임을 지적한 것은 두 승려의 농담이 현실의 논리를 뛰어넘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운편의 <낭지승운 보현수>조는 승려 낭지의 비범함을 소개한 설화이다. 이 가운데 원효가 등장하는 대목은 낭지가 반고사에 머물러 있을 때이다. 원효는 낭지의 지시에 따라 初章觀文과 安身事心論을 짓는다.

14) 『삼국유사 신역』 앞의 책, pp.315~316.

晩年移止恒沙寺 時元曉撰諸經疏 每就師質疑 惑相調載 一日 二公浴溪 掇魚蝦而啖之 放便於石上 公指之戲曰 汝屎吾魚 故因名吾魚寺

15) 『신증동국여지승람』Ⅲ 제23권 영일현 불우(민족문화추진회, 1971), pp.380~381.

…원효가 禪高寺에 머물 때에 늘 가서 낭지를 뵈었더니, 낭지는 명하여 초장관문과 안신사심론을 지었는데, 원효가 다 지은 뒤에 隱士 文善으로 하여금 글을 받들어 달러가 주달하였는데…16)

낭지는 삼량주 아곡현의 영추산에 있던 이상한 중이다. 그는 법화경을 강해하며 신통한 힘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家奴였던 지통이 찾아오자 그의 우수함을 인정해 주는 이인적 면모를 지닌 인물이다. 사회 통념과는 관계없이 행동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는 知人之鑑<sup>17)</sup>을 지닌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원효가 이러한 이인과 교류하였다는 사실은 원효의 이인적 면모를 확실히 한다. 원효 역시 숨어있던 인물인 낭지의 능력을 알아보는 지인지감을 지닌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인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세 편의 설화들에서 원효의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결과적으로는 능력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행동과 사고가 앞 일을 예견하고, 숨어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 3.3. 凡人型

다음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승려로서의 일반적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제까지 살폈던 영웅형과 이인형의 모습과는 달리 일반 승려가 지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설화들로,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蛇福不言>, <前後舍利>, <義湘傳教>가 이에 속한다. 이 가운데 <전후사리>와 <의상전교>는 원효가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고자 했다는 사실이 간단히 기록

16) 『삼국유사 신역』 앞의 책, p.391.

元曉住禪高寺時 常住謁智 令著初章觀文及安身事心論 曉撰訖 使隱士文善奉書馳達

17) 정병현, 『배우자 선택 이야기(擇夫談)의 유형적 성격』, 『아세아여성연구』 35(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96), pp.17~19.

이 논의에서 제시한 ‘사위고르기 설화’와 ‘인재발탁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아버지는 지인지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여성영웅소설의 하나로 알려진 박씨전에서 박씨의 매필인 이지백을 선택하는 박씨부인의 부친과 이지백의 부친 역시 지인지감을 가져 주인공들의 성취를 간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되어 있으므로 따로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다.

탐상편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조에서 원효는 관음을 만나기 위해 낙산사를 찾는 인물로 등장한다. 의상의 뒤를 이어 진신을 알현하기 위해 낙산사를 방문하는 원효는 의상과는 매우 다른 과정을 통해 진신을 알현한다. 의상이 만난 관음은 그 모습조차 잘 드러내지 않는 숭고한 모습을 보이며, 의상이 이례 동안 제계하는 방법을 통해 관음에게서 침주를 얻게 된다. 의상이 진신을 알현하는 과정은 불자가 수도하는 일반적인 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비교적 순탄하게 목적을 달성한다.

… 이곳에서 이례 동안 제계하고 座具를 巖水 위에 띄웠더니, 龍天八部의 시종이 그 석굴 안으로 인도하여 들어가 꿈중에 참례하고 수정염주한 재미를 내어 주었다. 의상이 받아 가지고 물러오더니, 등해 용이 또한 여의보주 한 달을 주었다. 의상이 받아들고 나와 다시금 7일 제계를 하였더니, 그제서야 그 참 얼굴이 나타나면서 …<sup>18)</sup>

그런데 원효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원효에게 나타난 관음은 눈에서 벼를 베는 여인, 다리 밑에서 월수백을 깔고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의상이 만난 진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결국 형식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상과 행적을 보였던 원효 또한 이러한 관음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그 뒤 원효대사가 뒤를 이어 이곳에 와서 예알을 하려 하여 처음 南郊 무는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한 흰옷을 입은 여인이 벼를 베는 것을 보고 원효는 희롱으로 여인에게 벼를 빌었더니 그녀 역시 농담으로 … 또 다리 밑을 거닐을 제, 한 여인이 月水帛을 깔고 있기에 원효는 그녀에게 물을 빌었더니, 그녀는 그 더러운 물을 떠서 드렸다. 원효는 물을 얻어 버리고 다시금 … 원효가 聖壙에 들어가 다시금 眞容을 우러러 보려 하였으나, 풍량이 크게 일어 들어가지 못하고 떠났었다.<sup>19)</sup>

18) 『삼국유사 신역』 앞의 책, pp.267.

齋戒七日 淨座具巖水上 龍天八部侍從 引入窟內 參禮空中 出水精念珠一貫給之 湘領受而退 東海龍亦獻如意寶珠一顆 師牽出 更齋七日 乃見眞容

19) 『삼국유사 신역』 위의 책, p.268.

後有元曉法師 繼踵而來 慈求眞容 初至於南郊水田中 有一白衣女人刈稻 師戲請其

원효가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게 된 것은 아직도 원효가 자신의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원효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다시 진신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

의상에게는 일상적 모습으로 나타난 진신이 원효에게는 비일상적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는 두 고승의 사상에 대한 설화 향유자의 인식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원효산 설화에서는 이러한 설화 향유자의 인식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신라 때 일이다.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결의형제의 의를 맺고 양산군에 있는 원효산을 찾아갔다. 그들은 거기서 도를 열 때까지 헤어져 살기로 했다. 원효는 지금의 원효대에, 의상은 지금의 의상대에 초옥을 세우고 수도에 들어갔다. 두 대는 코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이다. …… 어느덧 7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초저녁이었다. 의상대 앞으로 어떤 보령의 부인이 나타나 의상대사의 방문을 두드렸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쉬어 갑시다.” “여기는 승방이니, 여자는 들어오지 못하오.” “너무 춥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소.” 문득 여자는 신음하는 소리를 내었다. “대사님 산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의상은 문고리를 여불게 잠구었다. “의상대사 다 되었다더니 아직 멀었구나. 그럼 온 김에 원효나 만나볼까.” 여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떠났다. …… “관세음보살이 나를 시험하러 왔던 것이구나.” 원효는 그 물에 목욕했다. 그는 그 순간 도를 깨쳤다. 이튿날이었다. “나이기에 망정이지 판 사람 같으던 큰일났지. 아마 형님은 기어코 어젯밤에 파계하고 말았을 거야.” 그는 그 길로 원효대로 갔다. 문은 여니 천단뚝박에 원효대사가 32상을 갖추어서 신비의 웃음을 머금고 앉아 있었다. 그는 문득 고개가 숙여졌다. 대사가 도를 열었음을 의상은 단번에 깨쳤던 것이다. “형님 무정합니다. 어찌 혼자서.” 의상은 울었다. “울지마라. 저기 아직 물이 남아 있다. 너도 어서 목욕을 해라.” 자세히 보니 결의의 덕야에 돌이 고여 있는데 향기가 진동했다. 그는 원효에게 인사를 하고 목욕을 했다. 머구에 그도 도를 깨쳤다. 사람들은 말한다. 원효는 대승불교요, 의상은 소승불교였다(20)

원효산 설화로 소개된 이 내용은 본래 삼국유사 탐상편의 <南白月 二聖 禱

禾 女以稻流穢答之 又行至橋下 一女洗月水帛 師乞水 女酌其穢水獻之 師履棄之  
… 師悉入聖窟 更觀眞容 風浪大作 不得入而去

- 20) 원효산 설화, 성기옥·김학성·권두환 편, 『고사기론』(새문사, 1993), pp.195~196.

勝夫得 恒相朴朴>조에 실린 것으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일화가 원효와 의상의 것으로 변모되어 전한 것이다. 원효산 설화를 원효와 의상의 사상적 차이를 설화 향유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원효가 먼저 해탈에 성공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원효에 대한 설화 향유자의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조에서 보인 원효의 행동은 원효가 의상과는 달리 대승불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화 향유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충격적이다. 원효 자신의 특기로 인식되었던 비속한 것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조에서 원효가 평범한 아낙으로 가장한 관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된 것은 원효같은 훌륭한 인물도 설화 향유자 자신들과 같이 한계를 지닌 평범한 인간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자신들과의 동일시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감추어진 것의 가치를 아는 인물인 원효를 매개로 하여 더욱 비속한 것(감추어진 것)의 가치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의해편 <사복불언>조에서 원효는 사복의 어머니의 장례를 돕는 조력자로 설정되어 있다.

설화의 서두에서 소개된 사복은 지아비가 없이 잉태되어 열두 살이 되도록 말도 하지 못하고 걸음도 걷지 못하는 미친한 존재이다. 사복과 비교해 볼 때 설화상의 원효는 특별히 미천하지도 귀하지도 않다.

그러나 사복과 원효의 만남은 처음부터 의문을 갖게 한다. 한없이 미천해 보이는 사복이 불승인 원효의 예에 답례도 하지 않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원효는 이러한 사복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상대방의 처지에 관계없이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또는 사복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원효의 능력이 제시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효의 뛰어난 앞의 유형과 비교할 때 매우 미약하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죽었는데, 이때 원효가 교선사에 머물더니, 원효가 맞이하여 예를 하였으나, 사복은 答拜하지도 않고 말하였다. “내가

옛날 經을 실었던 암소가 이제 죽었으니, 그대가 함께 가서 장사는 것이 어떨지.” 원효는 응락하고 곧 함께 그의 집에 이르렀다. 원효로 하여금 살수계를 퍼게 하니 시체를 향하여 기도했다. … 사복은 그 調가 너무 번거롭다하여 이렇게 고쳤다. …<sup>21)</sup>

원효는 사복의 요청에 따라 계를 퍼서 사복모의 극락왕생을 빌어주는데 사복은 원효의 말이 번다함을 나무라며 계를 고친다. 본래 원효는 번다한 것을 간추려 진술하는 저술태도를 지니고 있다.<sup>22)</sup> 원효의 특기가 사복 앞에서는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설화 마지막의 부분에서 원효의 왜소함은 더욱 부각된다. 사복이 어머니의 시신을 메고 띠풀 아래의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대목에서 원효는 그것을 방관하다가 혼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사복은 곧 계를 지었다. … 말을 마친 뒤에 띠줄기(茅莖)를 뽑았더니, 그 아래에 한 세계가 열리는데, 명랑하고도 청허하였다. 칠보로 꾸민 난간과 누각이 장엄하기가 인간 세상이 아니었다. 사복이 그 시체를 지고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더니, 그 땅이 돌연 서로 합허지는 것이었다. 원효는 곧 홀로 돌아왔다. …<sup>23)</sup>

평범한 사고를 뛰어넘어 행동하였던 원효에게도 사복의 행동은 충격적인 것이었으며 이것은 설화 향유층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후일 사복과 관련된 많은 설화가 유행하였음을 지적한 것은 향유자들이 이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사복의 행적에 의도적인 변개를 가했을가를 짐작하게 한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금강산 동남에 절을 세우고 도량사라 편액을 붙이고 해마다 3월 18일에 검찰회를 행하되, 향규를 삼았다. 사복이

21) 『삼국유사 신역』 앞의 책, pp.331~332.

一日其母死 時元曉住高仙寺 曉見之迎禮 福不答拜而曰 君我昔日馱經犂牛 今已亡矣 惜葬何如 曉曰 諾 遂與到家 命布薩授戒 臨尸祝 … 福曰 詞煩 更之 …

22) 송고승전, 『고승전』(이문사, 1977.)

23) 『삼국유사 신역』 위의 책, pp.332~333.

福乃作偈 … 言訖拔茅莖 下有世界 晃朗清虛 七寶欄楯 樓閣莊嚴 殆非人間世 福負尸共入其地 奄然而舍 曉乃還

세상에 남긴 것은 오직 이 일뿐이어늘, 뽕뽕에는 다투어 황당한 이야기를 가탁하였으니, 가소로운 일이었다...<sup>24)</sup>

또한 『동국이상국집』의 기록을 살펴볼 때, 사복과 원효의 관계가 <사복불언>조와 같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날 扶寧縣宰 李君 및 다른 손님 6~7인과 더불어 원효방에 이르렀다. 늪이가 수십 층이나 되는 나무사다리가 있어서 발을 후들후들 켜며 찬찬히 올라갔는데, 경계와 창호가 수풀 끝에 솟아나 있었다. 듣건대, 이따금 범과 표범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다가 결국 올라오지 못한다고 한다. 곁에 한 암자가 있는데, 속어에 이른바 '蛇包聖人'이란 이가 옛날 머물던 곳이다. 원효가 와서 살자 사포가 또한 와서 모시고 있었는데, 차를 달여 호공에게 드리려 하였으나 샘물이 없어 딱하던 중, 이 물이 바위 틈에서 갑자기 솟아났는데 맛이 매우 달아 젓과 같으므로 늘 차를 달였다 한다.<sup>25)</sup>

위의 인용을 참고할 때, 사복은 원효를 모시고 있었던 제자의 한 사람으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복을 <사복불언>조에서는 원효보다 더욱 비범한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원효의 장기인 '말아깎이' 사복의 '말없음'으로 인해, 원효의 '상식적임'은 사복의 '비상식적임'으로 인해 평범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복불언>조는 사복의 비속함이 같은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널리 인정되었던 원효라는 목격자를 통해 한층 높은 수준의 것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보여주도록 의도적인 변개가 가해졌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원효설화가 원효의 평범함이나 상식적인 면모를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저히 비속한 경지로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효의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에도 원효는 승려로서의 신분에서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원효가 지닌 불승이라는 신분적 특수성을 설화 향유자들이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24) 『삼국유사 신역』 앞의 책, p.333.

福之應世 唯示此瀾 但言多以荒唐之說託焉 可笑

25) <南行月日記> 『동국이상국집』 제23권 (민족문화추진회, 1978), p.259.



#### IV. 『삼국유사』에 나타난 원효설화의 성격과 의의

이 논문은 역사 인물 설화에 나타나는 설화 향유자들의 인식을 구체적인 설화작품에서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원효설화에 등장하는 원효의 인물 유형을 살펴보았다. 가급적 일관된 서술태도를 지닌 설화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가장 많은 원효설화를 수록하고 있는 『삼국유사』의 원효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인물설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뚜렷한 이름이 있는 역사적 인물이다. 과거 어느 시대의 유명한 인물이므로 그 이야기를 향유하는 일반인들과는 차이가 있다. 이때 유명한 인물이라는 것은 그 인물이 이름이 날 만한 이유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으로 설명되며, 그것은 대개 대단한 능력이나 재간을 가졌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야기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과 재간을 갖지 못한 평범한 존재들이므로, 이들이 자신이 지니지 못한 능력으로 세상에 이름을 얻은 이러한 인물을 선망과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sup>26)</sup>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능력을 인정받은 설화의 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시도도 일어나게 된다. 뛰어난 인물도 알고 보면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자신들의 열등감을 일정정도 해소하거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삼국유사』의 원효설화에 등장하는 원효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설화 향유자의 이중적 심리가 잘 나타난다.

『삼국유사』의 원효설화 가운데 원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의해편의 <원효불기> 한 작품뿐이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원효의 이인적 면모는 설화 향유자들이 원효를 어떠한 인물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본 자료가 된다.

원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설화가 원효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면 원효가 보조적 인물로 등장하는 설화들은 원효라는 역사 인물에 대한 설화 향유자의 인식이 어떻게 파생되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26)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p.394.

된다. 이러한 설화들은 설화 향유자가 신라의 고승대덕이라는 원효의 신분적 특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인적 면모를 바탕으로 하여 보조적 인물로서의 역할도 파생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의 원효설화에서 원효의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히 비속한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향유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결과이다.

<태종 춘추공>과 <광덕 업장>으로 대표되는 영웅형과 <이혜동진>과 <낭지승운 보현수>로 대표되는 이인형의 원효설화에서 원효는 능력을 지닌 인물에 대한 설화 향유자들의 선망과 기대감을 기반으로 국가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모습을 보였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설화 향유자들의 이러한 기대감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설화 속 인물을 통해 대리충족하거나 현실의 질곡을 타계해 줄 희망을 주는 인물형을 창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 작품 속의 인물에 대한 기대와 선망은 많은 소설 작품 속에서도 주인공 혹은 조력자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후대에 등장하는 많은 소설 작품<sup>27)</sup> 속에서 하늘에서 부여받은 운명적 능력을 타고난 주인공이 등장하여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고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로 禪僧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설화향유자의 바람이 이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식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역사적 인물을 조력자로 등장시키는 것이 가상인물을 등장시키는 것보다 훨씬 쉽게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역사적 인물이 지니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역사적 인물들이 서사문학사 속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향유자에게 능력을 공인받은 조력자로서 자리매김되어 왔음을 생각하게 한다.

또한 이인형과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와 <사북불언>으로 대표되는 범인형의 원효설화에서는 감추어진 것에 대한 가치를 역전의 논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인형에서는 원효의 지인지감을 통해 더욱 감추어진 인물들을 소개하거나 상식을 뛰어넘는 원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범인형에서는 원효 역시 한계를 지닌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과 일반적으로 원효의 특기로

27) 특히 역사군담소설류에서는 주동적 혹은 보조적 인물로 역사적으로 실재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그들이 작품 외적으로 향유층에게 확보하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인식되었던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원효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인물들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물형의 등장은 역사적 인물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설화 향유자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가치있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설화 향유자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현실 대응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의 원효설화는 원효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설화 향유자의 기본적 인식과 그것에서 파생되어 나가는 인물의 역할을 한 자료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역사 인물 설화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역사적 실존인물이 허구화되는 과정과 그 역할의 다양화를 설명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서사물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역사 인물의 다양한 면모와 그에 대한 향유자의 인식을 고찰하는 기초작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여타의 서사작품에 등장하는 역사적 실존인물들의 다양한 면모와 그 기능을 통해 역사인물 허구화의 전개과정을 살펴 나갈 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민족문화추진회, 1978)  
 일연, 『삼국유사』(이가원 역, 태학사, 1991)  
 『승고승전』(이문사, 1977)  
 『신증동국여지승람』(민족문화추진회, 1971)  
 성기옥 외, 원효산설화, 『고시가론』(새문사, 1993)  
 김상현, 「원효의 행적에 관한 몇 가지 신자료 검토」, 『신라문화』 5(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9)  
 김영태, 「전기와 설화를 통한 원효 연구」, 『불교학보』 17(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0)  
 \_\_\_\_\_, 『삼국시대의 불교신앙연구』(불광출판사, 1990)  
 \_\_\_\_\_, 「현전 설화를 통해 본 원효대사」, 『불교사상사론』(민족사, 1992)

- 김윌덕, 「전북지역 구비설화에 나타난 영웅인식」, 『구비문학연구』 4(한국구비학회, 1997)
- 김태준, 「원효전의 전승에 대하여」, 『어문논집』 7·8(전남대학교, 1985)
- 사제동, 「원효불기의 문학적 연구」, 『배달말』 15(배달말학회, 1990)
- 오대혁, 「원효설화의 구조와 의미」(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6)
- 윤주필, 「이인설화의 의미 층위와 문제점」, 『설화문학연구』 하(화경고전문학연구회 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8)
- 이기문, 「신라어 '穉(童)'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8·49(국어국문학회, 1970)
- 임재혜,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지식산업사, 1992)
- 정병현, 「배우자 선택이야기(택부담)의 유형적 성격」, 『아세아여성연구』 35(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96)
-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 \_\_\_\_\_, 「영웅이야기의 유형:분류 방법 모색을 위한 시도」, 『구비문학』 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_\_\_\_\_, 『한국설화와 민중의식』(정음사, 1985)
- \_\_\_\_\_,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지식산업사, 1996)
- 황폐강, 『신라불교설화연구』(일지사, 1975)

Abstract

## The Special Character of Won-hyo in 『Samkukyusa』

Kim Ji-Yeon

The object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the recognition of the class which possessed tales of historical character in each tale and to analyse the type of the character, Won-hyo. As 『Samkukyusa』 was written by the consistent narrating manner and have many tales of Won-hyo, it will be devoted to the consistent analysis to deal each tale of Won-hyo in that work.

Generally the historical characters of tales had been famous persons historically with real name and different from common people. There is a proper reason of their fame. That is, those characters have tremendous ability or talent which distinguished from that class as common people. So the class not only envy those characters but also attempts to put themselves in same category with historical characters. It was possible to reveal the historical characters as only common people in fact. Through that process that class exposed their potential values and dissolved their inferiority. These two tendency of that class are clearly showed in tales of Won-hyo in 『Samkukyusa』 .

In the only one tale among tales of Won-hyo, he is showed as the main character with special ability. And there can be found the basic recognition of Won-hyo of the class.

And the rest of tales of Won-hyo as a minor, assistant character presented the derivative recognitions of the class. That class knew very

well Won-hyo as the great monk in Shilla dynasty and derived Won-hyo a minor, assistant character with extraordinary capacity. Because of these recognition of that class, the tales of Won-hyo in 『Samkukyusa』 do never show the vulgar feature of Won-hyo at any case

In the special character (has an extraordinary ability, concealed in the world) tale of Won-hyo, he is showed of great talented character who solve the national crisis and foresight the future and sufficient for the hope of that class instead of themselves by overcoming their difficulties. This hopeful character were succeeded not only by main characters but also minor assistant characters by that class. It can be considered same as this case that a gifted character, for example a monk, overcome the national difficulties and help a main character. For this case, it is more creditable that a historical character as a minor character help a main character than that a fictional character he helps a main character. By this reason, the historical character was succeeded continually in narrative after that times and positioned as a authorized helper.

Also, the two types, that is, which Won-hyo is showed as a special character or a common character reveal the hidden value of the world. In the type of Won-hyo as a special character, he reveals both some common characters and himself as talented character through his divine capacity. Appositely in the type of Won-hyo as a common character, he is exposed of only a common man with common difficulties and limits and he is not better than common men. The class often make that kind of the latter type. And they can position themselves as the same valuable existence of historical characters through that processing. This is their manners of the class coping with world.

Interestingly the tales of Won-hyo in 『Samkukyusa』 are good proofs of two points. That is, there are melted of the basic recognition of Won-hyo of that class and the derivate roles of Won-hyo of which origin is the

former recognition. These studies of historical characters of tales are very meaningful as the base of the process which real historic persons changed fictional characters and which fictional characters were much derivate of their roles. And this study will be a base of these continual studies revealing the change the roles of the historical character and the recogniton of that class.